

어린이 대상 체험형 콘텐츠... 亞문화·자연 ‘한눈에’

분주한 학업 혹은 학원 스케줄에 따라 갈수록 마음의 여유를 누리기 어려운 어린이들의 각박한 정서를 북돋우며 시험과목 밖에 예술이 놓이다보니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우 트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성인만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많은 현실 속에 어린이들을 위한 강좌와 전시 등이 마련돼 운영된다. 이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ACC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봄 강좌'와 광주시립미술관의 어린이 갤러리 기획전시 등이 대표적으로 눈에 띈다. 이들 강좌와 전시를 정리, 소개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2026 어린이 갤러리 기획전시 '보다, 그리다, 나만의 그림'을 31일부터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1층 어린이 갤러리에서 갖는다. 출품작은 23점.

이번 전시는 '보다'와 '그리다'의 의미를 어린이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감상·체험형 전시로, 회화·디지털 미디어·키네틱 아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 표현의 확장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장 내 체험 공간에서는 감상과 창작을 연계한 교과 기반 체험활동도 함께 제공된다.

전시는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1섹션 '먹으로 보다'에서는 먹의 농담과 여백을 활용한 다양한 풍경 표현을 감상하고, 2섹션 '색으로 보다'에서는 색채와 빛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경험을 탐색한다. 3섹션 '움직임으로 보다'에서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키네틱 작품을 통해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4섹션 '상상 연구원 창작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창작 활동이 이뤄진다.

먼저 1섹션 '먹으로 보다'에서는 먹의 농담과 여백이 담긴 김형수·허달재·박태후 작가의 수묵화와, 설박 작가의 플라주 산수, 이이남 작가의 디지털 산수 영상 작품이 전시되며 불 화선지 체험과 입체 산수 포토존이 함께 운영되고, 2섹션 '색으로 보다'에서는



‘요리조리 도시락 오벤또’

이이 3섹션 '움직임으로 보다'에서는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최문석·박종영 작가의 키네틱 조각과 조세민 작가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품을 통해 생태와 공존의 가치를 전달하며, 어린이 참여형 오토마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4섹션 '상상 연구원 창작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전시 감상 후 '탐험일지'를 작성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참여 어린이에게는 '상상 연구원' 인증서가 제공되며, 완성된 작품은 현장에 전시된다. 참여작가는 김형수 허달재 박태후 설박 이이남 임병

광주시립미술관, 상시 운영 중 출품작 23점 선별 감상과 창작 연계한 교과 기반 체험활동 등 다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어린이 문예교육 봄 강좌 내달 15일~6월 28일까지 ACC 어린이창작실협실

임병규 작가의 남도 풍경화로부터, 우재길·김종일 작가의 기하 추상, 조근호 작가의 도시 야경을 통해 화가의 시선에 따른 색채 표현의 다양성을 소개하며, OBS 스튜디오와 RGB 놀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 송필용 조근호 우재길 김종일 정정주 조세민 최문석 박종영 황경숙씨 등이다. 문의 062-613-71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창작실협실에서 '2026 ACC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봄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봄 강좌는 유아와 초등학생,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용·음악·미술 등 전통적인 예술 영역에 음식, 생태 등 아시아 문화와 자연을 결합한 총 11종의 다채로운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영유아 가족(20개월~5세)을 대상으로 하는 '방긋방긋 블루밍 부케'는 그림책을 활용한 감각 놀이로 펼쳐진다. 유아(4~6세)를 위한 '요리조리 도시락 오벤또'는 일본의 도시락 오벤또 문화를 알아보고 클레이로 나만의 도시락을 만들고, '나폴 나폴 나비 마실'은 꽃을 찾는 나비의 여행을 주제로 몸과 음악, 미술을 결합한 활동으로 각각 이뤄진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특히 초등 1~3학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연극형 프로그램 '그날의 포즈, 오늘의 이야기'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6세부터 초등 2학년까지 참여 가능한 '온몸으로 굽는 레보쉬카'는 중앙아시아 전통 빵을 주제로 한 신체놀이, 초등 1~6학년 대상 '놀러와, 이야기 숲으로'는 그림책 기반 스토리텔링 및 창작 놀이로 각각 구성된다. ACC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 탐험 교육 '폼지락 생태 놀이터' (초등 3~5학년), 글라스 아트 활동을 해보는 '글라스 아트 공작소' (초등 4~6학년) 등이 운영된다. 이밖에도 '예술가와 놀자!', '유아~초등', '어린이 예술 놀이터 워크숍', '어린이 예술 놀이터' 등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당재단은 기존 주말 중성 운영에서 벗어나 평일 강좌를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그림책·공예·생태 체험 등 융합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명규 사장은 "어린이문화원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화발전소"라며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재로 한 이번 봄 강좌를 통해 아이들이 예비 예술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좌 접수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전당재단 누리집(www.acc.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일정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성인만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많은 현실 속에서 내달 어린이들을 위한 관련 강좌와 전시 등이 마련돼 운영된다. 사진은 광주시립미술관의 2026 어린이 갤러리 기획전시 '보다, 그리다, 나만의 그림' 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ACC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봄 강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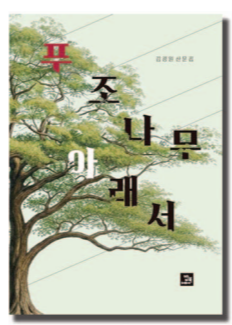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세상사 조망하다

대안학교인 담양 한빛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김정원 시인은 산문집 '푸조나무 아래서' (밤복판)를 출간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 전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선택한 뒤 소일거리로 텃밭 농사를 지으며 간소한 의식주와 함께 소박하게 자족하며 살고 있는 저자다. 저자는 은퇴 후 교사이자 농부, 시인이며 여행가로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안빈낙도, 고즈넉한 삶을 즐기면서도 의식이 꺼지지 않도록 영민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자는 가끔 SNS에서 소소한 자신의 일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사유하고 시와 글을 써 왔다. 이번 산문집 역시 이런 연장선상에서 선보이게 된 것이다. 작가는 '영감은 참나에 번뜩이는 곳 아이디어

가 아니라, 지난하게 쌓아 올린 노고에 내려앉은 불씨'라고 생각한다. 그런 작가의 노고에 내려앉은 불씨들이 글의 영감이 됐고, 그 글들이 이번 산문집에 담겨졌다. 일상에서 사회문제까지를 탐하며, 그 관심과 생각을 정제된 글로 풀어낸 이번 산문집에 수록된 글들은 무엇보다 간결하고 명료해 시처럼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시적 감흥이 더해진 듯, 문장들은 가지런하고 정갈하며 유려하다. 이는 바로 글을 읽는 즐거움으로 이어져 끝까지 산문집을 덮지 않게 한다. 젊은 사람들의 인스턴트 문화를 지적하려는 모양인가 보다 했지만 보기 좋게 빛났다. 이색적인 제목의 '맥도날드 문화' (2부 70~73쪽)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고유한 문화특수성

김정원 시인 산문집 '푸조나무 아래서' 펴내 제5부 구성 67편 수록... "연륜 깊은 멋과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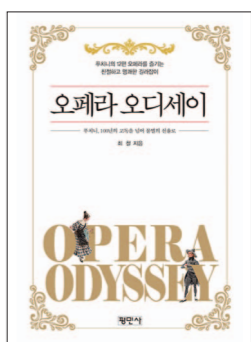
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천편일률적 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생태와 인문학으로 새롭게 디자인되기를 갈구하고 있다. 오히려 세대적인 제물들보다 더 눈길을 붙잡은 '정환당 이발사' (4부 134~136쪽)에서는 한국전쟁 후 가난한 농촌 출신인이 이발사에 놓인 삶의 여러 숙제들이 놓여 있고, 끝내 그는 세상

의 굴곡과 차별, 가난이라고 하는 언덕을 넘어 자신의 이발소야말로 모두가 같은 사람이자 사람사는 냄새와 손의 온기가 머무는 작은 섬이라는 점을 군더더기없이 정리하고 있다. 이 산문집은 '풀국'을 비롯해 '맥도날드 문화', '논든 논민 자', '시, 참된 삶 받아 쓰기', '문학으로 연대합니다' 등 제5부로 구성됐으며, 일상에 대한 정서가 투영된 67편의 글이 실렸다. 김정원 시인은 자서를 통해 "빛나는 작가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산이 작가를 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작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자유지만 결국 운명이다. 작가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와 좌절에 걸려 넘어진 자리를 짓고 다시 일어선다"고 언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인문학으로 읽는 푸치니 오페라 최철 감독 '오페라 오디세이' 출간

이탈리아 오페라 거장 자코모 푸치니의 삶과 음악 세계를 입체적으로 풀어낸 인문서가 출간됐다. 최철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이 최근 인문서 '오페라 오디세이: 푸치니, 100년의 고독을 넘어 불멸의 선율로' (평민사 펴)를 펴냈다. '오페라 오디세이'는 푸치니가 남긴 12편의 오페라를 단순한 음악적 분석을 넘어 인문학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푸치니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사생활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풀어내며 '당대 최고의 흥행 작곡가'로 불렸던 그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책은 '라 보엠'을 비롯해 '토스카', '나비부인', '투란도트' 등 푸치니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각 작품의 탄생 배경과 음악적 특징, 인물의 감정선을 짚는다. 특히 인간 푸치니가 겪은 고독과 갈등이 음악으로 어떻게 승화됐는지를 서사적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끌었다. 타이틀에 담긴 '100년의 고독'은 푸치니 개인의 삶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음악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오페라를 어렵게 느끼는 독자를 위해 줄거리와 주요 아리아를 쉽게 설명하고 감상 포인트를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책은 1부 '푸치니의 생애와 예술', 2부 '1기 오페라 작곡가로서 도전의 시기', 3부 '2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반열에 오른 황금의 시기', 4부 '3기 새로운 음악을 향한 도전과 원숙기' 등으로 구성됐다. 북콘서트는 21일 오후 7시 30분 호남신화대 예음홀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저자의 해설과 함께 소프라노 김희정·임연서, 테너 허동권, 바리톤 박찬일 등이 참여한 정삼급 푸치니의 주요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시대별 미감 전하는 아르플래닛 피아노 선율

2회 정기연주회 25일 ACC 예술극장 극장2

피아노 선율이 지닌 폭넓은 스펙트럼과 시대별 미감을 한 무대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 공연이 펼쳐진다. 클래식 예술단체 아르플래닛(ARPLANET·대표 최혜지)이 오는 25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 'Heritage&Horizon'을 갖는다. 연주회 타이틀인 'Heritage&Horizon'은 전통적인 음악의 유산(heritage)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새로운 지평(horizon)을 함께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피아노 음악의

흐름을 한 무대 위에 펼쳐며, 각기 다른 시대의 음악 언어와 감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무대는 아르플래닛 소속 피아니스트 유예름, 이서영, 최혜지가 꾸민다. 유예름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8번 내림마장조 작품 31-3 중 1악장 알레그로와 3악장 미뉴에트를 선보이며, 이서영은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소나타 제4번 올림바단조 작품 30을 통해 특유의 신비롭고 서정적인 음악 세계를 풀어낼 예정이다. 최혜지는 거슈윈의 프렐류드 1번과 볼컴의 우아한 유령 연주를 통해 리드미컬하고 감각적인 무



대도 공연의 색채를 더한다. 이번 공연은 베토벤의 견고한 형식미와 절제된 우아함, 스크리아빈의 몽환적이고 섬세한 감성, 거슈윈과 볼컴의 세련되고 생동감 있는 어법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혜지 대표는 "이번 공연은 베토벤에서 스크리아빈, 그리고 거슈윈과 볼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피아노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객들이 피아노 음악의 폭넓은 매력을 자연스럽게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 신청이 가능하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객은 사전 예약 후 공연 당일 예매자 명단 확인을 거쳐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르플래닛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르플래닛은 정년 연주자들이 중심이 돼 기획과 연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클래식 예술단체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15회 이상의 공연을 기획·제작하며 누적 관객 약 2800명을 기록하는 등 지역 클래식 공연계에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